

즉흥음악의 미세한 호흡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내다

박재천 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새 앨범 '자화상' 제작 발매

'연주가라면 모름지기 음악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며 매년 새 앨범을 발표하는 박재천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그런 그가 올해도 어김없이 앨범을 제작·발매했다.

그는 축제를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도 음악작업을 하며 연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의 활동을 곁에서 지켜 본 이들은 작업이 흡사 중노동을 연상시켰다며, 이번 발매 음반을 두고 그의 '열정·강박의 소산물'이라고 말한다.

이번에 발표한 2개의 앨범은 한국과 홍콩에서 각기 2CD로 구성돼 발매되었다. 새 앨범은 '자화상(Self-Portraits)' 오디오기/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재발매 앨범은 'Queen&King, Dreams From The Ancestor/노이즈 아시아/홍콩'이라는 이름으로 음악팬들과 만난다.

'자화상'은 박재천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젊은 연주자 김성배(베이스), 이아람(대금), 김오카(색소폰), 최휘선(양금), 오진원(기타), 이재하(거문고), 김은영(피아노), 신현석(해금), 표진호(보컬),

최성호(기타), 지박(첼로), 이승현(피리), 객재혁(태평소), 신현석(아쟁) 14명을 밀동삼아 윈 테이크로 완성한 14곡의 듀오 음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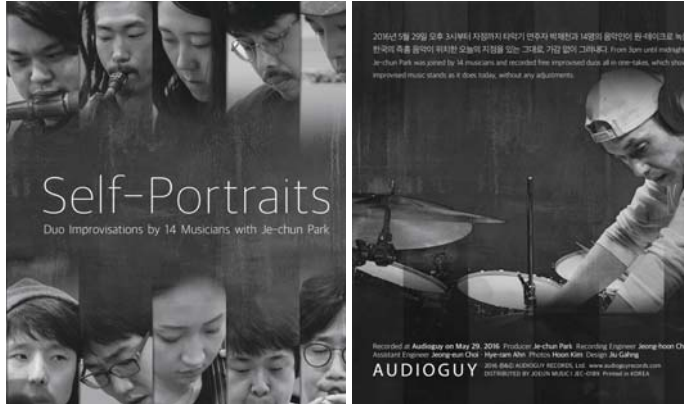
한나절 가량씩 이어진 작업은 한 번의 쉽나 수정 없이 날 것 그대로, 즉흥음악의 미세한 호흡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냄으로써 실력적인 음악성을 추구했다.

재즈비평가 김현준은 앨범에 대해 "우리나라 프라뮤직의 현재를 완벽히 조망하는 결과"라며 "박재천은 한국 프라뮤직의 프리즘"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재발매된 음반은 그의 음악적 동반자 미연과 함께 한 '미연&박'이 수년 동안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즉흥음악 연주그룹으로 이룬 탁월한 성과를 홍콩이 주목한 결과다.

이는 그들이 이뤄온 '21세기형 즉흥음악의 새로운 대안, 미국의 재즈에 아시아의 독특하고도 깊은 그리고 매우 직관적인 정신세계를 접목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다.

미연&박 듀오의 가장 탁월한 음반으로



박재천 위원장의 새 앨범 '자화상(Self-Portraits)/오디오기/한국'의 앞과 뒤

꼽히는 'Queen&King(2005)' 'Dreams From The Ancestor(2008)'를 다시 만나는 기회이다.

'Queen&King(2005)'은 명료한 모티프와 접근, 독창적인 주제의 제시, 풍부한 표현력 등 최고 수준의 음악성을 보여준 앨범으로 '한국 재즈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또 'Dreams From The Ancestor(2008)'는 재즈와 국악의 미덕을 고루 갖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앨범으로 2009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최우수 크로스 오버 음반' '올해의 최우수 연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고3 수험생에 공연프로그램 제공

(재)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은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수혜강화를 위해 문화재단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전주교육지원청은 '수능아, 이젠 놀자!' 공연 희망학교를 접수하였으며, 문화재단에서는 공연 참여단체 공모를 진행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윈'을 선정하였다.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 꿈과 열정을 통한 대리만족, 그리고 청소년들과 소통과 공유를 이끌어낼 라스트포윈의 댄스컬(ONE DREAM)은 비보이의 역사, 동작의 탄생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공연이다.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 숨겨진 끼와 재능을 펼쳐 보이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소품과 사물을 이용한 라스트포윈 전매특허 퍼포먼스 공연으로 구성된 본 공연은 24~30일 희망학교를 찾아가 총5회에 걸쳐 열리게 된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여 있던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문화적 향수를 통해 의미 있는 수능 후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전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 063)283-9227.

/정해은 기자

명창 박애리씨, 30일 정읍시민 대상 특강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박애리 명창이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박 명창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소리야 놀자'를 주제로 관소리에 담긴 선조들의 해학과 삶의 지혜를 들려줄 예정이다.

박 명창은 지난 2003년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가 '오나라'를 불러 전 국민 애창곡으로 사랑받게 한 장본인이다.

창작 관소리와 국악가요, 애니관소리, 관소리 등화 등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온 젊은 소리꾼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국악콘서트와 라디오, TV 국악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중의 범위를 넓히며 국악의 특별함을 전해주고 있는 참 국악인이다. '국악계의 디바' 또는 '국악계의 아이돌'로 사랑받고 있다.

2010년 한민족문화예술대상 국악부문 젊은 작가상, 2010년 서울문화부제가 젊은 예술가상, 2010년 제37회 한국방송대상 국악인상 등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박 명창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구수진 소리와 유머와 위트, 재치 있는 말솜씨로 재미나고 유익한 강연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행복 특별강좌'는 정읍시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여 시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오고 있는 것이다.

시는 사회 저명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 3월부터 11월까지 마지막 수요일에 특별강좌를 실시해 오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차이콥스키의 명작을 인형발레로 만나는 인형발레 '백조의 호수'가 어김없이 찾아온다.

'백조의 호수'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내년 1월 5일부터 올림픽공원서

차이콥스키의 명작을 인형발레로 만나는 인형발레 '백조의 호수'가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공연제작사 (주)알앤디웍스에 따르면 '백조의 호수'는 2017년 1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

무용수들이 테디베어 곰 인형 '두두'를 비롯해 백조, 여우, 토끼, 개구리, 다람쥐 등 친근한 동물로 변신하는 이색 발레공

연이다.

1억 원을 투입해 털 한 올 한 올까지 정교하게 만든 동물의상을 비롯해 집채만한 도토리야 높이 3m의 거대한 백조야양, 나뭇잎으로 만든 바이올린 등 거대한 세트가 눈길을 끈다. 토끼, 다람쥐, 개구리 등의 특징을 살린 안무와 배우 양희경, 뮤지컬 배우 부부 김소현, 손준호가 부른 창작곡을 추가해 뮤지컬 같은 재미를 추가했다.

201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초연한 후 5회 프로덕션을 통해 8만 관객을 끌어모았다. /뉴시스

리듬과 파워가 역동적인 퓨전 스테이지

김제문화예술회관 전통타악과 남미 하모니 결합시킨 '공감 21' 공연

가을 끝자락에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의 타악과 남미안데스 음악이 만나 예술적 하모니로 조화시킨 재미와 신명이 살아있는 '퓨전 콘서트 공감21'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타악과 남미안데스 음악이 만나 예술적 하모니로 조화시킨 재미와 신명이 살아있는 작품이다.

무엇보다 두 개의 전통 그리고 과거와 오늘이 전통과 전통이 만나 재창조된 음악 무대로서 우리의 전통 리듬을 기반으로 한 우리 타악기와 남미안데스 전통악

기가 만나 한 무대에서 현대화된 타악 퍼포먼스의 새로운 형태의 퓨전 음악공연으로 문화가 다른 두 음악의 동적인 느낌과 정적인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연주자의 곡 해설과 함께 우리나라 타악기 뿐만 아니라 안데스 전통악기설명, 남미의 정열을 느낄 수 있는 라틴음악의 흥겨움과 국악의 신명과 안데스 전통타악기가 같이 어우러져, 농어촌의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공감대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스태프 공개 채용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는 제8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갈 스태프를 오는 12월 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마케팅팀 2명, 이벤트팀 6명, 프로그램팀 8명, 홍보미디어팀 2명, JIF팀 1명, 운영관리팀 3명, 관객서비스팀 18명, 총무지원팀 2명으로 총 8개 팀에서 42명을 모집한다.

접수방법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jif.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자기소개서와 함께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jif_recruit@jif.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대상은 해당업무 근무지에 거주하거나 근무기간 중 근무지 거주 가능한 자로, 지원분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 별로 외국어 능력 및 운전 능력 등이 필요하며, 영화제 유경험자 및 영화관련 업무 경력자는 우대한다.

문의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행정팀 063)288-5433.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24일>

<p>▷쥐띠 46년생: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투기나 투자는 금하는것이 좋겠다. 72년생: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84년생: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좋은 결실을 맺는 운.</p>	<p>▷소띠 49년생: 어려워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는 운이다. 73년생: 혼자서 해내야 하는 운이니 타인의 덕을 바라지 마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 매사 잠시 쉬었다 가라.</p>	<p>▷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기운이 가득으로 한하니 집안에 화기가 돈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말 없는 일이 천리를 가는 법이다. 86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인해 해결.</p>	<p>▷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니 겸손이 뒷받침해라. 75년생: 정신적으로 놀랄 일이 생기니 매사에 주의할 기울어라. 87년생: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가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뒷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는 운이니 뒷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다.</p>	<p>▷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생각보다 좋은 결과. 65년생: 소위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니 혼자서 묵묵히.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바라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p>	<p>▷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정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겸손을 잃지 마라.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은 운.</p>	<p>▷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막혀 있다.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이니 금전운은 불리하다.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p>
<p>▷원숭이띠 55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라. 69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나 큰일은 불가하다. 81년생: 남자는 어지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지 못하면 길하리라. 93년생: 시바수가 따르는 운이니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라.</p>	<p>▷닭띠 57년생: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심신을 어지럽게 한다. 81년생: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이니 말을 줄여라. 93년생: 원통은 불리하니 먼 곳으로 움직일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p>	<p>▷개띠 49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질라. 59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해서는 안된다. 71년생: 동기근로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이니 주의하라.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일의 해결이 먼저.</p>	<p>▷돼지띠 47년생: 소름돋은 사람과의 관계회복에 힘쓰면 좋은 운이다.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만 못하니 내실을 다지고 마음을 정비.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위험했던 실태라가 풀리는 운이다.</p>